

도시바, 日이와테에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...WD 산하 샌디스크 참여하나

등록 2017.09.06 17:52:26



【서울=뉴스시스】김혜경 기자 = 도시바(東芝) 반도체 자회사 '도시바메모리'의 매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, 도시바가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비해 혼슈(本州) 북부 이와테(岩手)현에 반도체 새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.

NHK 및 니혼게이지아신문에 의하면, 도시바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'도시바메모리'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일종인 '낸드형 플래시 메모리' 생산을 늘리기 위해, 이와테현 기타카미(北上)시에 도시바 그룹사 부지 및 그 주변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.

도시바메모리는 낸드형 플래시메모리를 미에(三重)현 옷카이치(四日市)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만, 스마트폰 및 데이터센터용을 위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.

기타카미시 새 공장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, 공장의 완성 시기 및 투자액, 그리고 생산 규모는 미정이다.

도시바는 미국 웨스턴디지털(WD) 산하 샌디스크사의 새 공장 참여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한다고 밝혔다.

도시바는 내년 3월 말까지 채무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할 방침이지만, 매각처 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, 반도체 시장의 국제 경쟁이 가속하고 있어 생산력 증강을 위해 새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.

한편 도시바는 6일 오전 이사회에서 도시바반도체 매각과 관련해 WD를 포함한 '신 미일 연합'으로의 매각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도시바는 반도체 매각처로 '신 미일연합'뿐 아니라 미 투자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이끄는 '한미일 연합', 그리고 대만의 흥하이(鴻海) 정밀공업 측의 제안도 계속해서 정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chkim@newsis.com